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1, 여호수아 23-24장 여호수아의 두 번의 작별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1회, 여호수아 23-24장, 여호수아의 두 가지 작별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3장과 24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두 번의 고별 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장에는 여호수아가 트랜스요르단 지파들에게 연설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한 다음 제단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23장에서 여호수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두 장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약간의 중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 가지 연설이 아닌 한 가지 연설만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의 실제 사건만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훨씬 더 비공식적이고 목회적인 23장입니다. 개요로 쉽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말하는 조슈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인 24장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에는 언약의식, 언약갱신의식, 언약확정의식이 있습니다. 둘째, 첫 번째 메시지는 국민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계속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인 24장은 온 나라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장, 1장,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24장에서는 더 큰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인 23장이 실로에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은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지도 제작자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18장부터 23장은 모두 실로와 그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세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장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여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연설은 앞서 말했듯이 좀 더 목가적이며 좀 더 비공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개인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마지막 말을 연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서는 그가 아들들과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신명기 32-3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목회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에서 비슷한 종류의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장에서 여호수아는 책의 모든 주요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웃의 종교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에 확고함을 갖도록 열정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수들을 쫓아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권고도 있지만 냉철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그들은 육체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있고 너희 육체에 가시가 있으며 올무와 올무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시 주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물론 우리는 수백 년 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본 다른 것들과의 일부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멸하였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사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아직 주변에 가나안인들이 있다는 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나라들의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밀어내시며 네 목전에서 쫓아내시리라. 따라서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작은 관점입니다.

우리는 부족들이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작은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언급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 대부분은 우리가 이 책의 앞부분과 신명기에서 발견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은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고, 이 장에서는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문인 1절과 2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실제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와 갓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노령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과 이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고는 3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권고인 3절부터 8절까지의 개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충실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의 대부분은 모세가 여호와를 섬겨 너희에게 명한 율법의 계명을 삼가 지켜 행하되(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부종하라 하였느니라,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십시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말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신명기의 첫 11장 중 거의 모든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한 곳에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10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열어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뒤를 돌아보며, 그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였던 2세대에게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율법을 복습하고 앞을 내다보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조는 매우 목가적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과 오늘날에 걸쳐 어떤 의미에서 사랑받는 목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은퇴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대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볼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거의 35년 만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목가적이며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언급한 것 중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 개론을 가르칠 때 수업 첫날 신명기 10장의 이 구절을 12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서 모세가 어떤 그림,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희생과 사역을 요구하시고 형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신인가? 그리고 분명히 다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 23장의 구절을 예시하는 몇 가지 구절을 여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13절의 끝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때로 우리의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율법이 일종의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시편 119편과 같은 시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매우 선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늘과 하늘들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호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다시 예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월적인 신입니다.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너희 조상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12절),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했듯이 다른 맥락에서는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구약에는 외적 할례가 있고 신약에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된다는 이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심장 절개 수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면의 마음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비유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크시고 전능하시며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편파적이지 아니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앞서 문맥에서 여러 나라의 신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요, 나는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모두의 주님이다.

나는 그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합의 말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본질적으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는 고아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신다(18절). 과부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줍니다.

체류자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르(GER),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인 외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비전입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것은 여호수아 23장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이야기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컬럼비아에서 자랐을 때 8학년을 졸업했고 우연히 8학년 졸업생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수업에는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졸업생 대표로서 그 당시 아주 좋은 파커 펜을 얻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6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펜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컬럼비아의 뒷마당에서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 둘레에 길이가 15~20피트 정도 되는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랫줄이 붙어 있는 곳을 위아래로 달릴 수 있었고,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를 쓰다듬고 가끔 함께 놀곤 했습니다.

한번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꼭대기까지 달려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펜을 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다시 끌어내려 마침내 내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에서 펜을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이 펜을 꺼내는 데 거의 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랬을 때, 그것은 모두 굵혔고, 나의 아름다운 졸업생 대표 펜은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여기서 주님께 매달리다, 붙잡으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dabaq*, *DABAQ*입니다.

접착제를 뜻하는 명사 *debeq* 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제는 사물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다 바크 에게 합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 연합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입니다.

원숭이와 펜을 기억하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조쉬가 여기 그의 마지막 연설 옆에 있는 23장의 마지막 연설에서 말한 종류의 것들에 대한 배경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장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만일 돌이켜 그 남은 이방인을 붙들어 그들과 혼인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민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13절). 그래서 이상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신들과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붙잡고 그들과 결혼하는 등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울무와 덮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암시된 것은 아직 쫓겨날 국가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이 끝날 때에도 작업이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여호수아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리라 너희가 다 알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너. 물론 그것은 21장 25절과 4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그 중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니다.

거기에 또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슈아를 대표하여 매우 개인적인 주소이며 매우 열정적인 주소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같은 어조와 정신으로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말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노하시고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준 좋은 땅에서 너희는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와 훈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구성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율법, 토라, 오경, 모세오경 처음 다섯 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2권과 12권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네 권의 책인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상륙하여 그곳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책인 열왕기하에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땅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역사를 위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해석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슬프게도 그 궤적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부분 하향세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 땅에 정착할 일이 있고 만일 너희가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연설의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인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실로가 아닌 세겜이라는 새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1절). 그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13절에는 과거에 대한 일종의 복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어난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2절)로 시작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2절 끝). 따라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을 때, 그의 가족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참하느님을 알게 된 방식으로는 참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삭과 야곱 등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6절 이하에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발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광야에서 모압 왕이 일어나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여리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말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벌을 네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네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라

시혼과 옥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민수기). 말벌이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일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말벌 떼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아마도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는 말벌 무리가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승리를 원한다는 은유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거기 거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등을 먹느니라. 저는 앞서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살펴본 구절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웅덩이,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등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한 땅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24절에는 언약의 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성실로 그를 섬기라. 곧. 많은 학자들은 이 장, 특히 이 장의 이 부분을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간 조약과 협정을 맺는 데에 특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약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일종의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그 장은 어느 정도 그것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장이 언약 조약 양식의 본문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장의 배경에 언약이 맺어지고 있지만 이 장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더 큰 이야기에 통합하는 서술형 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약의 공식적인 법적 내용이 아니라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절에는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네 아버지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에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는 앗수르 땅과 바벨론과 강이 있고 큰 강은 유프라테스 강 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왔고

분명히 그들은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의 신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째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등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중에 이집트로 유배되었을 때 이집트의 신들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놀라운 진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다는 확증이 그들이 참 신에 대해 배울 때까지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일부 이집트의 신들과 여신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들을 좋은 시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첫째로 강 저편에서, 둘째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말하였느냐?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책에는 신실함이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루어지고 제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교 숭배를 근절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과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일들을 너무나 강조하는 책의 다소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도전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악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 건너편 땅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신들이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니라 이제 세 번째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15절 끝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집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단어로 명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많이 팔렸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것이 매우 대중적인 정서이자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정과 식당, 거실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집 주변에 그런 말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 맥락이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여신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애굽 땅과 그 밖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들은 모든 옳은 일을 단언하고 있으며,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과 15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 사이에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의 반응은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19절에서 그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다른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비밀스럽고 사적인 숭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가혹한 진술처럼 들리는데, 한 주석가는 이것을 구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로 무엇을 합니까? 글썄요, 그 자체로, 우리가 그 구절을 골라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소 가혹한 신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그들은 주님을 안고 싶다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신들과 여신들을 분명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20절도 21절과 같이 갑니다. 죄송하게도 19절은 계속되기 때문에 20절과 같이 갑니다. 즉,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이는 아무 복을 행치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반대면은 당신이 그를 버리지 않으면 그가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구원할 것이며 구원할 것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말이 아닌, 결코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1절에서 다시 항의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그분을 섬기도록 택하셨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23절. .

그래서 19절의 그 가혹한 진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다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기울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래 우리가 이같이 행하리라 ,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헌신과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에 인을 치고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모든 문장을 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날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그들을 위한 율례와 규례를 정하였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왕인 신명기 17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왕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에는 왕이 율법책 등을 기록하여 마음에 새겨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이라는 또 다른 문맥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왕은 아니지만 경건한 리더십의 원칙은 확실히 이 책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을 따르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책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테라빈 아래에 세웠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백성을 돌려보내고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것은 책의 마지막 섹션의 일종의 묶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옳다고 느끼는 제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신들을 제치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수 없다는 모순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일종의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고, 아시다시피 그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숭배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신들 중 일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가 세 번의 사망 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조슈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나니 2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는 110세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디마세라 에 장사하였습니다 .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거의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히브리어도 아니고 우리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 영감받은 성경 본문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호기심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은 29절의 이 지점에 여호수아, 다시 돌아가서 20장과 21장의 끝 부분으로 돌아가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42절, 여호수아 21장, 42절 뒤에는 약간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영어가 아닌 헬라어 번역판에 추가된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는 5장에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사용했던 두 개의 부싯돌 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 디마세라 . 그 내용은 구약성서 헬라어 번역본 여호수아 21장 42절에 나옵니다.

자기 고향인 디마세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껴둔 두 개의 부싯돌 칼과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책을 통해 흥미로운 종류의 아주 작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는 5장에서 자신을 위해 칼을 만든 다음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그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적어도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그것을 간직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어 번역에서 흥미로운 작은 하위 주제입니다.

부싯돌은 매우 날카로운 돌이어서 아주 쉽게 잘릴 수 있어서 할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장에 대한 논의에서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와 그들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십보라가 빨리 일어나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부싯돌을 가져다가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 주셨느니라.

여기서 요점은 장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한 가지 기본 요구 사항, 즉 할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요점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는 데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서에 이르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 전체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5장).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가끔 멈춰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생애 초기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 임사체험을 했지만, 그 일을 끝까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작은 요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어 번역에 따르면 그 자신은 부싯돌 칼과 함께 묻혔습니다. 다음으로 31절을 보면 여호수아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먼저 살아 있는 장로들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도전하는데, 29절과 31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모든 시대와 장로들의 모든 시대에 여호와를 섬겼다.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오늘날까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거의 다윗이나 사울, 사무엘의 시대까지 내려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명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마도 침묵으로부터의 논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영구적으로 또는 훨씬 더 오랫동안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암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 전체에는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페이지를 잠시 넘기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히브리어 구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다음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차기 지도자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리더가 없고 상황이 엉망이 되어 모두가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것이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가질 수 있거나 그래야 했던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례는 장사지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하였음이라.

이것은 창세기 50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절에서 마지막 절 바로 옆인 요셉은 모든 육체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갈지라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에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있던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통치 하에 이집트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져갔으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순종하여 굳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느니라 .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창세기 5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기록에서 여호수아의 생애 말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 작은 면에서 신실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요셉의 뼈는 수백 년 전에 구입한 고향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론은 첫 대제사장이요 모세의 형제이므로 우리가 그를 그의 조상의 땅에 장사하였고 비느하스의 아들 곧 그의 아들도 그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땅에 정착하고, 여기에서 오경의 모든 움직임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경고를 보고,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좋지 않다는 불길한 징조를 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옳은 일을 행하는 경건한 지도자를 봅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인 라합에게서 외국인들이 포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가혹한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1회, 여호수아 23-24장, 여호수아의 두 가지 작별입니다.